

일본 자위대 신속대응전력 대폭 증강



특수전 전력 강화

2000년 이후 부대 창설 급증 대테러·게릴라전 대비 강화

일본 자위대는 전통적으로 특수전 전력에 약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군대 아닌 군대'라는 태생적 약점을 지닌 탓에 공격성이 두드러지는 특수전 전력 강화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즉응집단 창설과 함께 일본의 전반적인 특수전 전력 강화 움직임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원래 일본에는 특수전부대가 할 만한 전력이 없었으며 그나마 낙하산 공수 능력을 보유한 제1공정단(66년 창설)이 특수전 부대에 근접한 능력을 보유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특수전부대가 연이어 창설되는 등 사정이 급변했다.

새로 창설된 중앙즉응집단 예하로 정식 편입된 특수작전군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대표적인 특수부대다. 2004년 3월 약 300명 규모의 병력으로 창설된 특수작전군은 미국식 대테러 특수부대를 모델로 창설, 델타포스나 그린베레 등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창설된 서부방면대 보통연대도 평범한 부대 이름과는 다르게 기수를 중심으로 일본 서부 지방의 도시지방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다. 70여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서부방면대 보통과는 주변 국과 섬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을 때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약 700명 규모로 창설된 중앙즉응연대는 예하 중대마다 1개대의 지역반을 편성, 해외 파병 시 선견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상대적으로 가벼운 장비차량도 보유, 시가지 전투에도 최적화된 부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상자위대도 이렇다 할 특수부대가 없었으나 1999년 북한 공작선의 일본 침투를 빌미로 특수부대 창설을 결정, 2001년 특별경비대(Special Boarding Unit·SBU)를 창설했다. 8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경비대는 일본 영해를 침범한 선박에 승선·수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항공자위대도 유사시 게릴라들의 항공기지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기지 방어 임무를 전담하는 특수전부대인 기지방위교대 창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 소속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해양경찰에 해당 하는 일본 해상보안청에도 해상 방위대를 담당하는 특수부대인 특수경비대(Special Security Team·SST)가 있다. 일본 경찰 중에서도 일본 국외 거처를 경비하는 항공경찰특별경비대에 상당한 수준의 특수전부대에 가까운 전력을 갖고 있다.

밀리터리 포커스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일본 육상자위대의 신속 대응부대인 중앙즉응집단이 정식으로 창설됐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활동 강화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중앙즉응집단의 실체를 살펴본다. 편집자



아사카 기지에서 '중앙즉응집단' 창설 해외파병·대테러 능력 향상이 주목적 현재 3200명 내년 4000여명으로 증강

단사령부, 제101특수무기방호대, 국제활동교육대 등 3개 부대다. 내년 3월까지 제101특수무기방호대는 중앙특수무기방호대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며 화생방(NBC) 지뢰를 전담하는 대특수무기위생대도 새롭게 창설될 예정이다. 특히 고기동차량과 경장갑차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저격수 운용 능력을 대폭 강화한 시가지 전담 특수부대인 중앙즉응연대도 내년 3월을 목표로 창설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일본 방위성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2007년 말까지 창설한다고 소개하고 있어 빠르면 올해 안에 중앙특수무기방호대·대특수무기위생대·중앙즉응연대의 창설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부대가 모두 창설되면 중앙즉응집단의 총병력은 4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운용하나

중앙즉응집단은 예상 가능한 각종 긴급사태에 대처하는 육상자위대의 능력을 총집결시킨 것이 특징이다.



도쿄 북부 자위대 아사카 기지에서 지난달 31일 열린 육상자위대 중앙즉응집단 창설 기념식 행사장에서 제1공정단 소속 병력이 도열해 있다.

이다. 일본 방위성이 밝힌 중앙즉응집단의 임무는 유엔 주도 하에 국제 평화유지 임무지원, 국제 긴급 원조활동, 인도부흥지원, 재외일본인 수송, 일본 국내 재해·각종 사태 대처 등 다섯 가지다.

국제 평화유지 임무 등은 유연평화유지활동(PKO) 지원 등 해외파병을 의미하고 지진·홍수 등에 대처하는 국제 긴급 원조활동이나 인도부흥지원도 해외활동을 전제로 한 임무들이다. 재외일본인 수송은 유사시 해외 일본인들을 안전하게 후송하는 임무를 말한다.

해외활동 대비 교육훈련 지원, 파병 선발대 역할은 물론이고 파병 부대 지휘도 중앙즉응집단의 임무로 규정돼 있다. 중앙즉응집단은 육상자위대 해외작전 지휘소 역할까지 겸하는 해외작전전담 부대인 것이다.

일본 국내의 재해는 물론 각종 사태에 대해서도 파견될 수 있다고 규정, 게릴라부대의 침투나 테러분자에 대한 대처까지도 중앙즉응집단에서 맡게 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섬에 대한 탈취작전을 의미하는 탈도(奪島)작전까지 중앙즉응집단의 임무라고 소개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여전히 불투명한 인식을 가진 상황에서 자위대 해외작전 전담 부대가 창설됨에 따라 일본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도 높아질 전망이다.

자위대 변화 상징

2005년 7월 21일 모리 츠토무 당시 일본 육상막료장(참모총장)은 본지와 특별 인터뷰를 통해 "과거 자위대는 해안선 방위에 주력했으나 최근에는 게릴라에 대응하기 위해 시가지 전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작전 방침이 변했다"고 발언했다. 특히 그는 "유사 사태·재해·테러 등에 대해 대응하고 PKO와 국제 긴급 원조 등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 기동성·즉응성을 갖추는 것이 육상자위대의 발전 방향"이라고 밝혔다.

게릴라전에 대한 대비와 해외활동은 다른 어떤 중앙즉응집단의 대표적 임무다. 모리 전 육상막료장이 2년 전 강조했던 미래 발전 방향이 중앙즉응집단 창설로 구체화된 셈이다.

김병룡 기자 | yuen@dema.mil.kr

예하 부대 편성

임무가 다양한 만큼 중앙즉응집단 예하 부대도 복잡하고 다채롭게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즉응집단은 일본 유일의 공수부대이자 20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한 제1공정단, 2004년 3월 미국식 대테러 부대를 모델로 창설된 300명 규모의 특수작전군(Special Operations Group·SOG), 신속한 부대 기동과 수색·정찰·구조를 지원할 제1헬기단, 화학무기 방호부대인 제101특수무기방호대, 해외 파병부대를 훈련시키는 국제활동교육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서 이번에 새로 창설된 부대는 중앙즉응집단

용인 동백 동원 로얄듀크 단지내 상가 분양공고 (공고: 제 2007-1호)

- ▶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리 산 6-14번지 일대
 - ▶ 분양규모 : 상가 7개 층로 지하1층 지상2층 1개층
 - ▶ 검토필 용도 및 면적
- | 층 | 용도 | 면적 | 공용면적 | 비고 | 대지 지분 |
|------|-----|--------|--------|--------|---------|
| 지하1층 | 주차장 | 41.27 | 12.99 | 54.40 | 16.47% |
| | 기타 | 71.33 | 22.51 | 93.84 | 28.26% |
| 지상1층 | 주차장 | 40.80 | 12.78 | 53.58 | 16.20% |
| | 기타 | 155.27 | 48.08 | 203.35 | 60.05% |
| 지상2층 | 주차장 | 44.77 | 14.05 | 58.82 | 17.78% |
| | 기타 | 51.12 | 16.02 | 67.14 | 20.33% |
| 합계 | 주차장 | 188.96 | 55.06 | 133.90 | 39.06% |
| | 기타 | 44.99 | 14.05 | 59.04 | 17.09% |
| 총 계 | | 377.49 | 118.28 | 495.77 | 131.15% |

- ▶ 신청통칙 및 입찰요령
- ▶ 낙찰자 결정방법
- ▶ 입찰보증금 납부 및 환불
- ▶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 ▶ 낙찰자는 계약 기간내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본회로 귀속합니다.
- ▶ 계약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지정 기간 경과후에는 계약을 해제한다. 단, 발방간의 협의하여 일정기간 연장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연체료에 의한 소정의 연체료와 관리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각 점포는 사업승인신청서 승인후 도면내 의거 시공 후 전 상태대로 분할하여 추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업종 및 근린생활시설(음식점)도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하수도관인자부담금이 부과 될 수 있고 영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에 분양자의 책임으로 해야 합니다.
- ▶ 분양권 철회의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접수, 등록, 인·허가 조건사항(면적기준) 및 영입관리, 용도변경, 기타등 분양권 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분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본회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로 인수하여야 하며 시설기준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등 상가건조 현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점포사용을 위한 제반시설(인·허가, 간판, 서터, 전기·통신 연결 등) 기타와 점포별 가스, 상수도 계량기 설치 및 사용자명 변경, 한전 계량기(전기)설 공사로 인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 및 공용전기(기부도, 화물실, 오수펌프, 급수가입설 등)는 분양권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학원, 고교, 부속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관련 교육청 및 해당 허가기관에서 최소한적, 본도 밖의 등록, 인가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준공도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배리어 시설의 설치기준 안에서만 가능하며 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들은 입찰 전에 상가 자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시 및 입찰 후 입주 중에도 이에 대한 입찰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고 각 점포별 제반 관리는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자치관리 하여야 합니다.
- ▶ 상가단지내에는 상가용 급수가입설프라이 설치되어 제반 관리는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자치 관리하여야 하며, 상가 주차장 전·출입은 이차도단계를 통하여 전·출입이 이루어집니다.
- ▶ 상가 분양에 따른 리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 등록전에 군인공제회 운영지원팀(전화 02-2190-2105)에 문의하여 상세한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 후 미 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장소	비고
2007. 4. 16	군인공제회 회관 25층 운영지원팀	계약금 입금 영수증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 액	낙찰가격의 20%	낙찰가격의 30%	낙찰가격의 50%
납부일	계약일	2007. 5. 25	잔금납부 지정일

- 3. 입찰예정일 : 2007년 7월중(명확한 입찰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4.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안내
용인 동백 상가는 용인시 고시 제2006-253호 "옥외광고물등의 특정 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5. 유의사항
 - ▶ 당일 입찰은 우의사항에 의거 진행되며 위변인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 분양권을 매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음이 발견 되었을 때는 낙찰 및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과 계약금을 본회로 귀속합니다.
 - ▶ 상가에 대한 현상변경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여 입찰신청자는 분양공고, 검토요청, 계약조건, 기타 유의사항 등 상가분양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자동 대체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군인공제회 이사 장

시행사

군인공제회

http://www.mmaa.or.kr

시공사

주원동개발

www.dongwonp.com

분양문의 02-2190-2104~5